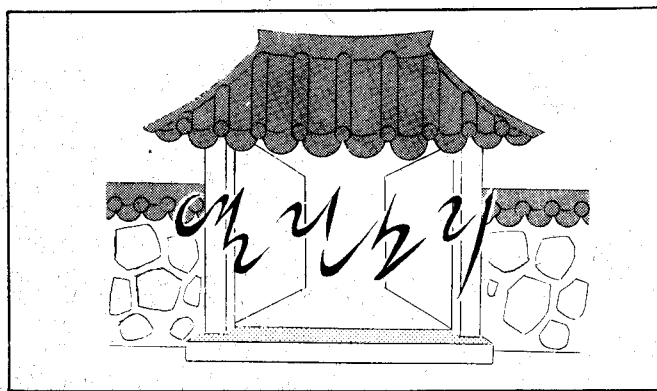




게시물 남발 방지

깨끗한 홍보문화 필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의실이 아니다. 양 옆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나무들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종류의 현수막과 나무, 돌, 바닥에 더러는 몇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는 여러 종류의 광고 및 행사안내문들이다.

심지어는 정문에서부터 행사장까지 도로에 붙여 놓은, 많은 양의 광고물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단과대학과 여러 단체들이 있으므로 행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홍보물들로 교내환경이 어지럽혀진다면 현재 행하여지는 홍보 게시물에 대해 신중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홍보물들이 행사가 지났어도 일부가 계속 부착되어 있어 처음의 형형색색도모양이 눈살을 찌푸리는 쓰레기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홍보물들이 어떠한 규제없이 교내 곳곳에 부착되는 것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대학의 자유로운인 게시판을 학내 주요한 곳에 신선했서 여기저기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일을 막고, 더 효과적으

로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것이 효율성과 환경문제에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생각이다. 앞에 제시한 홍보방식이 절대적이거나 이것만이 교내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억지일 것이다. 단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고 제대로 실천할 때 더 나은 대학홍보문화와 깨끗한 환경이 조금씩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창욱

(성악 1)

'사랑과 우정의 어깨동무 캠프'에 다녀와서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와 삼성기업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장애인들과 함께 2박3일을 보내는 것이었다. 지도하시는 분들이 강조하셨던 도우려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가는 거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집결 장소인 잠실교동체육관에 모였다.

하나 둘씩 나타나는 눈에 익은 동기, 후배들과 딱 봐도 정상인과는 조금 틀린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출발전 작을 지어 주었는데, 내 작은 정신지체라는 장애를 가진 동갑내기였고 나에 비해 체구가

아주 작았다. 먼저 인사를 하고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친구는 "네"라는 대답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완전히 성인이 되어 부부관계를 맺었을 때 넘어야 하는 솔직한 성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장애인들도 사랑과 욕구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낀 교육이었다.

다음 프로는 어울림 한마당이란 행사였는데, 함께 게임하고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모두 똑같은 행사복을 입고



▲캠프 참여자들이 휠체어농구를 하고 있다

어울려 놀았다. 그걸보니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이튿날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생활체육교실'이란 프로그램이었는데, 휠체어러비, 농구등을 함께 즐겼다. 휠체어러비는 휠체어를 타고 탐별로 하는 게임이었다. 지체장애인들이 민첩한 동작으로 경기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공을 만져 보지도 못하는 것에 깜놀리는 내 동기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장애인들은 어떠한 부분이 불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을 뿐이야. 우리가 저 휠체어를 타보지 않아

서 해내는 것처럼..."

그 이후의 행사였던 산에 오르기, 급류타기 등의 행사를 하며 우린 진정 함께였다. 하나였다. 이번 체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애인... 그들과 헤어지지 하루가 지난 지금, 그들이 보고 싶다.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정말 오랫동안 사심 없이 웃게 해준 그들의 느낌이 그립다. 꼭... 다시 만나고 싶



다. 집에 돌아오며 만난 장애인 복지체육회에 몸 담고 일하는 분의 말씀이 아직도 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수많은 위험과 사고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우린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미선

(체육 2)

도서관 자료정리,

효율적 운영 필요

중앙 도서관 열람실에는 보고서 작성 또는 독서를 위해서 책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학교 열람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열람실 초입에는 도서검색을 위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가 의문스럽다. 대부분의 책들은 번호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그 책이 비치되어 있는 구역을 찾는 것이 전부이고, 그 안에서 다시 각자 책을 찾아야 한다.

열람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번호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자신이 살펴본 책들은 스타미나, 다른 책들 위에 얹지 말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할 것이다.

이은지

(물리 2)

임의 휴강 아닌

사전통보 휴강

지난주 제가 쓴 열린소리 중 '강사가 임의로 두번의 휴강을 했다'는 내용은, 답사관제로 사전통보 되었던 휴강이었음을 밝힙니다. 사전조사 없이 열린소리에 기고해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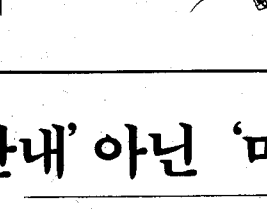
전혜숙

(사학 1)

독자 만화

만화통신

(수원캠퍼스 만화동아리)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경희사랑은 경희사랑저금통에서부터'라는 경희사랑 실천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경희사랑저금통 예금기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귀한 발전기금은 경희대학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점수순입니다. (9.28~10.9)

△배대경 (의대 의학과교수) 3백만원
△원병호 (문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 2차분) 2백24만9천4백30원

▲경희사랑저금통
△조용호 (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9차분) 6만4천4백20원

△손백현 (대의협력실 과장, 3차분) 2만9천90원
△박성애 (경희초등학교 교사, 2차분) 8만3천6백원
△노수현 (경희초등학교 서무부장) 6만6백50원
△이상목 (수원C 에지윈 운영과장) 4만6천4백40원
△전동훈 (경정대 학장, 경제학과 교수) 5만3천60원

▲도서기증
△이경하 (물리학과 박사과정) 60만원 상당액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라이프(ID) : khunews
◎보낼 곳 : 서울 수원 본사편집실 천리안(ID) : khunews

독자의 시

상념의 끝

전지영

(생물 2)

바람의 그림자 만큼이나 긴
내 상념은
밤의 적막을 깨고
또다시 웃음을 뿌린만큼
늘어놓는다

그리고
내 맘같은 어둠의 하늘은
오늘도 한가득 별을
안았다

그리 길지 않은 내 얘기에
잠을 깬 양 작은 잠속 하나
가만히 울고 가고

가슴 섬뜩한 내 공간의 허무함에
나머지 가만가만
눈물흘린다

헛된 몸부림으로 지친
내 몸뚱이 위로
새벽의 냉기가 스며들고

그제야
또다른 하루의 시작을
깨달은 나는
주춤주춤 웃을 입는다

朔風

예전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서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단지 자의적인 관계 일 뿐이었다. 개별적인 것으로 인정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대언어는 점차 형식과 내용의 필연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형식과 내용이 통합되고 있다는 뜻이다.

첨단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멀티미디어에서 흔히 이야기 하는 '아이콘'이라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이콘'은 인지와 동시에 자각이 가능한 기호로서 국경과 언어적인 차이를 초월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은 물질적인 발달에 비교해 너무나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외국인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 보자.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서울의 한 장소로 가야 했다. 그는 공항의 안내담당자로 부터 고객과의 약속시간에 기고 있었기 때문에, 혼잡한 육상교통보다는 "약속시간 어김없이 지켜준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지리를 잘 알지 못해도 혼자 힘으로도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이 동시에 안내 되어 있다는 말도 함께 들었

5호선 김포공항역을 출발한 그가 목적지인 한 역에 가기까지는 한번 전철을 갈아 타야 했다. 처음 공항 안내에게 들은 대로 그는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그가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공항안내가 예측한 시간보다 무려 2배의 시간이 소요 됐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곳곳에 안내 표지가 있었지만 자신이 길을 찾는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내'와 '표지'.

이러한 아이콘이 고객중심으로 고안되고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규격과 행정의 편의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지하철역에는 검색색 사자 기둥에 해당호선색 바탕의 역번호, 지하철 공사의 마크, '지하철', 'SUBWAY' 라는 표지밖에 없다. 정각 지하철 입구에 해당호선색 바탕의 기차 하나만 그려 놓으면 누구나 전철임을 알 텐데도.

혹자는 그사람은 미국의 일류 대학을 나오고 현재도 촉망받는 비즈니스 맨으로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그것도 못 찾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에 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안내라면 그것은 '안내'가 아닌 '미궁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이유는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님은 물론 어린이나 학

력이 낮은 성인과 아직 한번도 지하철을 이용해 보지 못한 지방의 춘부역시도 언제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 외국인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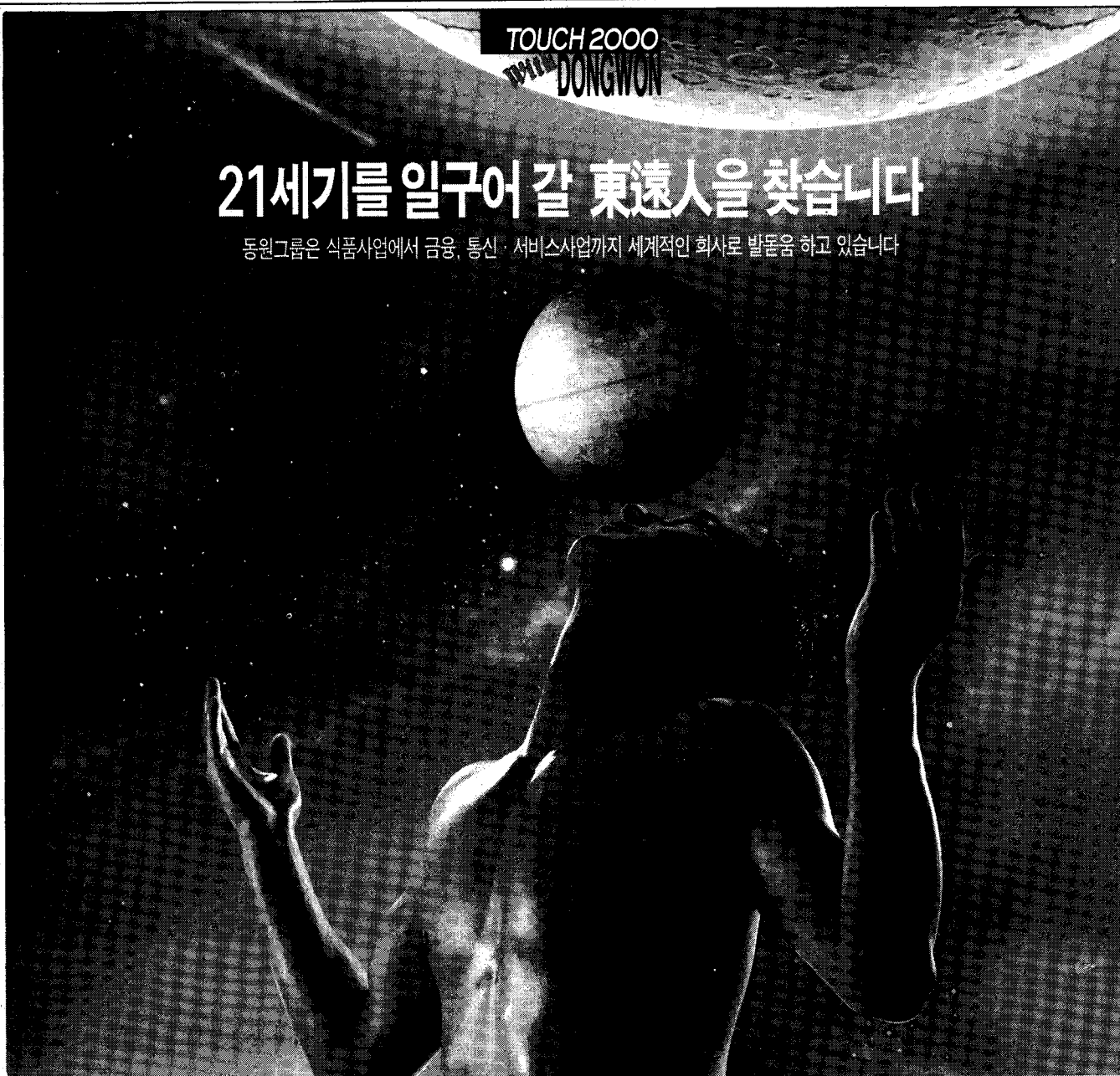
이러한 일을 우리는 단지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흔히 느낀다. 안내는 되어 있지만 사용자 중심이 아닌 '안내'는 오히려 2중으로 국가 경쟁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이 소수이지 않느냐고 반문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소수는 우리사회 전체에서 보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소수를 무시하는 행정과 무의식이 결국 사회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默雨)

21세기를 일구어 갈 東遠人을 찾습니다

동원그룹은 식품사업에서 금융, 통신, 서비스사업까지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모집계열	모집회사	모집분야	모집학과	모집인원	주관사
식품사업군	동원식품	사무관리, 마케팅, 식품연구, 식품경영, 전산, 생산관리	전학과	00명	동원산업
금융사업군	동원증권 동원경제연구소 동원창업투자 동원자산신탁은행 동원파이낸스	영업, 조사분석, 전산	전학과	00명	동원증권
통신·서비스사업군	신미전자 해피탈레콤	사무관리, 연구, 기술, 영업기술	전학과 (전자통신 관련학과 우대)	00명	신미전자

※모집회사별 전형은 해당 주관사에서 실시

2. 응시자격

가. 1998년 2월 대학(원) · 전문대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나.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대학원 졸업자는 68년 1월 1일 이후)
다. 해외여행에 걸려서유가 없는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전형방법

구분	식품사업군	금융사업군	통신·서비스사업군	비고
1차 전형	서류전형	서류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직접면접	직접면접	직접면접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3차 전형	면접전형	면접전형	면접전형	2차 전형 통과자에 한함

※최종검사 일시와 장소는 1차전형 결과 통보시 안내합니다.

4. 서류전형 통과 발표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ARS안내 (02-700-2224)
·인터넷상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w.co.kr)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 그룹 소정양식) 1통
·최종학력 전학내 성적증명서(학사 이상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자격증 사본 및 공인 TOEIC(JPT)성적표 사본 1통
※식품사업군 식품영업 지원자는 종전면접용 사본 제출

6. 지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1997. 10. 23 (목) ~ 10. 29 (수) 09:00~18:00 (일요일은 제외)
나. 교부처
- 각 주관사 인력관리위원회 - 전국 동원산업 영업지점 및 동원증권 지점 - 각 대학 취업 담당부서
다. 접수처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http://www.dw.co.kr) (담당자: mksohn@dw.co.kr)

구분	주관사	연 락 처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식품사업군	동원산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02-589-3009, 3280, 4270	mksohn@dw.co.kr
금융사업군	동원증권	150-010 서울시 양동포구 영도동 34-7	02-788-5055-6	kakun@dw.co.kr
통신·서비스사업군	신미전자	430-0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백담동 621-3	0343-67-7044, 7048-9	jhan@sungmi.co.kr

7.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접수된 지원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성인전직자 및 동원산업연수생은 병역특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주관사 인력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산업 동원농업식품 중앙공업 청주식품 동원증권 동원파이낸스 동원투자신탁은행 동원창업투자
동원상호신용금고 동원경제연구소 신미전자 동원정밀 동원건설 동원연발 해피탈레콤 레스코 에스미디어